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서예*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7. 23(토) ~ 8. 20(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50 Victoneta Ave. Potrero. Malabon City 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p> <p>학교 규모가 크고 시설도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며 어학원 내부는 에어컨이 있어 시원했음.</p> <p>English Only Policy (EOP) 등의 교내 규율이 있어 영어 공부하기 좋은 환경.</p>
수업	<p>Big group 수업 3개, Small group 수업 2개, Man to Man 수업 3개로 총 8시간 수업으로 구성되어있다. 입학식 날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반이 정해진다. 대그룹 수업은 선생님과 의사소통보다는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였고, 소그룹 수업은 문법이나 발음, Speech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였다. 맨투맨 수업은 1:1로 선생님 한 분과 수업 관련 혹은 수업 이외에도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첫 수업 때는 진도를 나가지 않아서 하루 종일 영어로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거나 나에 대한 얘기를 영어로 많이 해야해서 힘들었지만 1주일 내로 금방 적응 하였다. 영어로 말을 잘 못해도 선생님들께서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격려해 준 덕분에 수업 적응도 금방 할 수 있었고 영어로 말하는데 있어서 많은 자신감을 얻었다. 과제는 선생님마다 다르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고 모든 선생님들께서 수업 준비는 항상 철저히 해오셨다. 수업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았고 모든 수업시간이 항상 재미있었다. 다만 에세이나 발표준비가 약간 부담이 있었지만 이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실력도 늘고 자신감을 많이 가질 수 있었다.</p>
Activity	<p>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민도르섬 총 3개의 Activity 프로그램이 짜여 있었다.</p> <p>하지만 나는 모든 Activity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도르섬만 가려고 했었는</p>

	<p>데 날씨 때문에 취소되어 못 가게 되었다.</p> <p>팍팍한 폭포는 말 그대로 폭포를 다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벌 옷이 필요하다고 들었다.</p> <p>따가이따이는 화산산을 말을 타고 오르는 것이다.</p> <p>민도르섬은 다양한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우기여서 비가 정말 많이 내려 도로가 잠길 정도였다. 그래도 한여름이었던 한국보다는 날씨가 덥지 않았다.
안전	필리핀이 치안이 좋지 않다고 많이 들어 굉장히 많이 걱정했지만 학교 내, 호스텔, 학교 근처, 큰 쇼핑몰 등에는 가드들이 상시 배치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그래도 3명 이상은 무리지어 다니거나 남학생들과 같이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처음 방을 봤을 때는 정말 여기서 4주를 지낼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지만 하루 자고나니 금방 적응 할 수 있었다. 시설은 전반적으로 깔끔하였고 통금이 있어서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통금시간이 조금 이른게 아쉬웠다. 씨카페라는 공부를 하거나 간단히 라면이나 과자, 음료 등을 먹는 장소가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였다.</p>
식사	<p>학교식당(<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p> <p>평일에는 주로 호스텔 내 식당을 이용하였다. 타지에서 한국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먹었던 것 같다. 반찬이 좀 짜긴 했지만 국은 정말 맛있었다.</p>
교통	<p>학교는 호스텔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여 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다. 시내를 나가려면 지프니, 트라이시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나는 초반에 그랩택시를 주로 이용하였는데 후반에는 오히려 그랩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트라이시클이나 지프니 등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41,35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교통비, 기념품 등	520,000원	
합계	1,261,350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한국에서 환전을 해갈 때, 10,000페소와 나머지는 달러로 준비해오는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6500페소와 300달러정도 들고 필리핀을 가서, 달러를 페소로 환전하는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에 가서 물갈이를 하거나 음식이 맞지 않아 배가 많이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배 아플 때 먹는 약을 꼭 챙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정말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을 가기 전엔 4주가 정말 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4주가 지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니 너무 짧게만 느껴져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4주 동안 내 영어 실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었고 어느 점이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알게 돼서 매우 뜻 깊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이외에도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친구들과 영어공부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내 미래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를 나와 본 것이 이번으로 두 번 째에 혼자 나와본 것은 처음이라 초반에는 정말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지만 이번 어학연수를 통해 그런 것들을 떨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취업준비나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모든 일에 자신감도 갖고 피하지말고 부딪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순천향 식구들



마닐라 투어 때 대그룹 사람들과~!



캠브리지 맨투맨 티쳐들과 마지막 수업때
ㅠㅠ



티쳐와 학교 앞 카페에서 점심!



대그룹 마지막 수업 때 ㅠㅠ



졸업식 수료증